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수선탁덕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 눈을 밟고 들길을 갈때에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 모름지기 헛 발걸음을 말라

今日我行跡(금일아행적) :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가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 : 결국, 후인의 길이 되리라

[출처] 서산대사 말씀중 -눈길을 갈때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다른 호칭은 수선탁덕입니다.

수선이라는 말은 ‘가장 먼저’ 라는 말이며, 탁덕이라는 말은 ‘사제’를 가리키는 중국식 표현입니다. 그 말의 뜻은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했던 분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장서서 먼저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용기가 던가 아니면 무지로 인한 막연한 객기일런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지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의 앞에서 이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객기였는지 참용기인지는 훗날이 그 답을 말해줍니다. 훗날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찌하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170년 전 그는 늘 앞장서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국인 중에 아무도 해보지 않은 서양학문을 배우러 유학을 갔고, 한국인 중에 처음으로 사제가 되어 모진 고난 속에 배를 타고 양떼를 찾아 제주도로 서해안으로 참된 목자의 길을 헤쳐왔고, 사제 중에 맨 처음 하느님을 죽음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순교자는 언제나 살길이 있으나 더 큰 살길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들에게 순교자라는 호칭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억울한 테러의 희생양과 스스로 하느님을 증거한 순교자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는 테러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하느님만 버리면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살길이 있었던 분입니다. 하느님을 버리지 않았던 신덕이 있었습니다. 목을 내어놓지만 하느님나라의 입성을 늘 그렸던 망덕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온몸 바쳐 돌보던 애덕이 있었습니다.

덕이라는 말은 어찌다가 한 번 행한다고 해서 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신망에 삼덕을 늘 살아왔던 분이였기에 망설임 없이 하느님을 증거하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선탁덕은 겨우 1년 사제의 길을 걸었지만 그는 서산 대사의 말씀처럼 훗날 사제들의 모범이 됩니다.

1년을 살아도 평생을 산 것처럼 조심스럽게 헛도는 발자국 없이 하느님나라를 위해 걸었던 분입니다. 조심스러운 그 걸음에는 분명하고 무거운 신앙이 자국을 내고 있습니다. 그 자국이 후배사제들에게도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느님과 신자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수선탁덕의 삶의 발자국은 우리 후배 사제들에게 성찰과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부끄러움 말입니다. 그래도 수선탁덕이 향했던 길을 보며 또다시 후배 탁덕들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의 길을 어지러움 없이 조심스럽게 걸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부끄러움과 성찰의 길이 되어주십시오. 누군가에는 신앙의 길잡이로 당신은 살고 계십니다.

농은수련원 차광철 베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하느님 구원 계획을 전하고자 사제로 선택되신 김대건 신부님은 순교로써 현세를 초월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교우들의 삶과 신앙의 아버지로서 하느님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김대건 신부님의 사제직에 대한 열정에 감사드리며 이 시대의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며 정성되이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본기도

† 하느님, 올바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여,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역대기 하권 24장 18절-22절

안 내 :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하느님의 예언자마져 살해하였습니다.

묵 상 : 하느님의 예언자를 알아보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느님 말씀 때문에 죽기까지 충실한 예언자도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영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화답송 :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2독서 : 로마서 5장 1절-5절

안 내 :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 때문에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묵 상 :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은총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인내할 힘을 얻고 인내 가운데 단련되어 하느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얻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10장 17절-22절

강 론 : '수선탁덕'(1-2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498번 '예수여 기리리다'

영성체 후 묵상

예언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감도되어
자신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반대자들의 모함 속에 환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침묵>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현세의 목숨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선택하셨고 짧은 생애로 봉헌되셨지만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환난을 이겨낼 힘을 얻어 참 예언자의 길을 용감히 걸어갈 때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 선조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286번 '순교자의 믿음'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76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림

■ ‘昭林 김정자 화백 기증전’

- 일시 : 6월 24일(금) ~ 7월 7일(금)
- 관람시간 : 10:00 - 17: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전 교구민

■ 제22회 농민주일 기념 특별 강연회

- 일시 : 7월 7일(금) 19:30 - 21:30
- 장소 : 목성동 주교좌 성당
- 주제 : “교회의 밥, 사람의 밥”
- 강사 : 정은정(한신대 강사, 농촌사회학 연구자, “대한민국 치킨전” 저자)

■ 2017년 평협 하계연수 및 임시총회

- 일시 : 7월 8일(토) 16:00 - 9일(주일) 점심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본당 사목회장단, 제단체장, 평협 상임위원
- 참가비 : 1인 35,000원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세면도구 등

■ 문경지구 교사 연수

- 일시 : 7월 9일(주일) 13:00 - 18:00
- 장소 : 문경 본당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초등부 교재, 두레판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담당 수녀
- 참가비 : 1인 10,000원
- 신청 : 7월 6일(목)까지

■ 교구청사 봉헌 1주년 기념 수취페 도미네와 함께하는 찬양음악회

- 일시 : 7월 9일(주일) 16:30 - 18:00
- 장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예비신학생 캠프

- 일시 : 7월 15일(토) - 16일(주일)
- 장소 : 한성연수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세면도구, 운동화, 슬리퍼, 모자, 물놀이 준비, 상·하의 긴 옷 반드시 필요

■ 제22회 농민주일 기념 행사

- 일시 : 7월 16일(주일) 10:00 - 16:00
- 장소 : 풍양농촌선교본당

■ 건강한 가족 만들기(Family wellness)

- 일시 : 7월 8, 15일(토) 14:00 - 17:00
- 대상 : 초중등 자녀를 둔 부모 20명
- 장소 :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원 관구 4층(송현동)
- 참가비 : 1인 5만원

■ 제16회 초록빛 교실

(주제 : 숲은 우리의 쉼터)

- 일시 : 7월 29일(토) 14:00 - 30일(주일) 15:00
- 장소 : 봉화 우곡성지
- 대상 :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가족/개인/본당별 단체(선착순 150명)
- 참가비 : 1인 20,000원(3식 및 간식 포함, 숙박은 텐트 또는 피정의집 이용)
- 문의 : 초록빛 교실 담당자 010-3827-2275

■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 일시 : 8월 10일(목) 16:00 - 13일(주일) 15: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참가비 : 1인당 120,000원
- 신청자격 : 영세 후 3년이 경과하였거나 견진성사를 받은 분
- 신청 : 7월 14일(금)까지 본당 신부님, 꾸르실료 간사

■ <궁금해요, 프란치스코 수사님!> 2탄 20% 예약 할인 판매

- 노래로 배우는 어린이 교리 애니메이션 DVD (성탄, 성인들, 예수님을 따라서 편)
- 기간 : 7월 1일(토) - 31일(월)까지
- 혜택 : 36,000원(세트)->28,800원(무료배송)
- 주문 : 바오로딸 인터넷서점(www.pauline.or.kr/) / 전국 서원 / 02-944-0945

■ 한비아와 함께 걷는 한라산 둘레길 피정

- 일시 : 8월 16일(수) ~ 18일(금)
- 참가비 : 30만원(항공료 제외)-선착순
- 문의 :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064)796-9181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 4장 혼인의 사랑

사랑의 성애적 차원

150. 이 모든 것은 혼인에서의 성생활에 대한 논의를 이끕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꾸고 그 선물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 “참된 가치의 빈곤”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이 지닌 성의 가치를 부정”하도록 이끈다는 주장, 또는 “성은 출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을 단순히 용인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거부하셨습니다. 부부의 성적 욕구는 경시의 대상이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욕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51.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열정과 성에 관한 교육이 성적 사랑의 자발성을 손상시킬지 모른다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인간은 “관계의 자발성을 온전히 성숙시키라는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발성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충동에 대한 현명한 식별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는 “인내와 끈기로 육체의 본질적 의미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은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로,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거룩하고 침해할 수 없는 가치로 상대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은 이른바 다른 차원의 자발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체적 사랑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성의 표현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혼인에서 몸의 의미와 이 선물의 참된 존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는 몸의 신학에 관한 교리 교육에서 성적 차이가 있는 육체는 “풍요와 출산의 원천”일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

니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인간은 선물이 됩니다.” 건전한 성적 욕구는 비록 쾌락의 추구하고 결부되어 있지만, 언제나 경외의 마음을 전제로 하기에, 그러한 충동을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52.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성애적 차원을 용인되는 악이거나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견뎌야 하는 짐으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하느님께서 부부의 만남을 아름답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사랑의 성애적 차원은 다른 이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랑으로 승화된 열정이기에, 이는 “사랑의 순수하고 절대적인 동의”가 됩니다. 이러한 동의는 인간 마음이 해낼 수 있는 많은 경이로운 것들을 보여주며, “잠시라도 …… 삶은 좋은 것이 됩니다.”

폭력과 악용

153. 성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시각의 맥락에서, 이 주제를 건전한 현실주의에서 온전하게 전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 성은 종종 비인간화되고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성은 “자기주장과 개인적 욕망과 본능의 이기적 만족을 위한 기회와 도구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성은 ‘이용하고 버리는’ 사악한 정신에 지배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만족감을 주는 한, 종종 다른 이의 육체를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고, 매력이 사라지면 거부해 버립니다. 성의 의미의 왜곡으로 야기되어 상대방의 존엄과 사랑의 소명을 추한 사육 아래에 묻어 버리는 지배, 횡포, 학대, 성적 타락, 폭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숨길 수 있겠습니까?

154. 혼인에서조차 성이 고통과 악용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조건이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부부 행위는 참된 사랑의 행위가 될 수도 없고 따라서 부부 관계의 바른 질서가 요구하는 내용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성적 결합의 행위가 “참으로 인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이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의 본질에 맞갖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오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이러한 일로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1테살 4,6). 비록 바오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완전히 종속된 것으로 여기는 가부장주의 문화의 시대에 글을 썼지만, 성은 부부가 서로 상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오로는 “합의한 경우”(1코린 7,5)에는 성 관계를 얼마동안 미룰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영남(嶺南)의 영산(靈山) 소백산(小白山)

조태영 세례자 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소백산은 태백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소백산맥이 내륙 깊숙이 들어가 김천에서부터 남하하여 영남과 호남을 동서로 갈라놓았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경계는 확실치 않으나 단산면의 고치령에는 태백산의 산신령인 단종과 소백산의 산신령인 금성대군의 신상을 함께 모셔놓은 산신각이 있다. 마의태자의 애환이 서려있는 국망봉, 주봉인 비로봉(毘盧峰; 1440m; 금강산, 오대산, 묘향산도 정상을 비로봉이라 하고 비로는 비로지나라는 불교의 용어로 부처님의 몸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빛이 세상을 두루 밝게 비춘다는 뜻이다.), 연화봉, 죽령(竹嶺), 도솔봉으로 이루어졌다. 동쪽으로는 천년 고찰인 부석사를, 서쪽으로는 옥녀봉 휴양림과 치유의 숲인 다스림을, 중앙자락에는 4개의 호수를 가슴에 품고 있다. 영주시, 봉화군, 단양군에 걸쳐 있는 320평방킬로미터 구역을 1987년에 소백산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소백산은 서남쪽으로 높게 뻗어있어 기류가 사면(斜面)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가 되어 연중 많은 비를 내려 북으로는 남한강으로 흐르고 남으로는 내성천, 서천 등의 크고 작은 일곱 개의 하천을 통하여 연중 많은 물을 낙동강으로 흘러 보냄으로써 유역에 비옥한 농지가 형성 되었다. 특히 국망봉에서 발원한 죽계천은 죽계구곡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연화봉에서 희방 계곡으로 흐르는 물은 영남에서 가장 높은 28m의 희방폭포에서 시원한 기운을 쏟아낸다. 비로봉 입구인 풍기 금계동은 정감록 10승지 중의 1승지로서 이북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와 인견직조공장을 운영하였는데 지금은 풍기인견이 유명 브랜드로 성장했다. 비로봉 주변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주목은 빙하기에 우리나라에 살아남은 희귀종으로 봄에는 철쭉과, 가을에는 억새와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식물 1,000여 종 동물 1,7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분포되어 있고 산삼을 비롯한 각종 야생 약초가 자생하고 있다. 산자락에는 풍기인삼뿐 아니라 사과, 포도 등의 과일과 생활에 필요한 농산물이 없는 것이 없다.

영주는 사회, 문화, 종교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 순흥 일대에는 왕릉에 준하는 거대고분 수십 기와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산되는 고분들이 2,000기 이상이 집단적으로 남아 있다. 신라시대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만도 부석사를 비롯하여 다섯 곳이나 있으며 그 중 부석사는 북부내륙지역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점으로 삼아 불교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퇴계 이황선생도 제자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 유서 깊은 서원으로서 많은 선비들을 배출하여 영주를 선비의 고장으로 만들었으며 영남의 유림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농은 홍유한(1726~1785)선생은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천주실의> <칠극> 등을 통하여 천주교 수계생활을 한 분이다. 1775년 소백산을 찾아와 단산면 구구리에서 수덕생활을 하다가 1785년 선종하여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에 안장되었다. 천주교 안동교구는 구구리 유적지에 유적비를 세워 선생의 신앙을 기리고 또한 우곡을 성지로 지정하였다. 영주 시도 구구리 유적지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유적지를 찾는 분들을 위해 편의시설이나 안내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사람들은 소백산 품에서 풍부한 먹거리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정치 문화 종교에 있어서도 그 시대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므로 영주사람이라면 누구나 영남의 영산(靈山)인 소백산에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유적과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더 좋은 소백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